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2, 성서중간 배경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다시 시작합시다. 일부를 다시 공유하세요. 어쩌면 하나, 둘, 셋, 아니면.
.. 그래, 전에 차단하고 싶었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아, 그래, 그래
.

소리가... 아.. 나는 당신의 것을 켜습니다. 이거 켜셨나요? 무언가가
꺼졌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뇨, 아뇨, 거기는 괜찮아요.

나는 이것을 켜지 않았다. 그걸 켜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결하지 않았으니 이걸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연결해야 합니다. 아,
거기에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응.

아, 거기가... 영상과 같은 내용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았어
. 알았어, 내 생각에는... 알았어. 어때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은 오후예요.

원하시면 공관복음에 관한 12부작 시리즈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살펴보았고, 기본적으로 매우 빠른 스케치, 예수에 대한 일부 비기독교적
견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수에 대한 호평을 받는 역사적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학적 자유주의의 범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기적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사용되는 주장을 조금 살펴본 다음 그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다르지만 공관복음의 전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유대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성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구약성서 이야기의 끝과 시작을 구분하는 4세기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약의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중간기(Intertestament Period)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중간기(Inter testament Period)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두 번째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 중간기 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정보 출처에 대해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우선 구약성서에는 몇 가지 예언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니엘이 본 시대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들짐승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구약성경의 외경(Apocrypha)과 위경(Pseudepigrapha)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종교적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구약중기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것들은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가 구약성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성경,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으며, 일부 소규모 지역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등에서는 다음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의 위경(Pseudepigrapha)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구약 중간기 동안의 유대인의 종교 저술물은 비록 그것이 영감받은 저작물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일부 종파의 문화와 종교적 사상에 대한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그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명의 개별 작가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기원전 20년경에 태어나 서기 40년 이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 나일강 북쪽 삼각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우리가

헬레니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유대인은 많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그리스 철학에서 선별한 사상과 결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헬레니즘에 대한 부분적인 수용을 봅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수용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율법을 우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화하면 문자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는 온건한 헬레니즘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북쪽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면 흔히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Flavius Josephus)로 알려진 개인 요세푸스(라틴어 이름)가 있습니다. 그는 서기 37년에 태어나 서기 100년 이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덜 헬라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전쟁(66~73년), 즉 로마에 대항한 반란에 참전하여 참담한 결과를 낳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편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아마도 유대인이 로마에 대항할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다파타 라는 도시에 포위되었을 때 , 그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숨기고 지푸라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살하려고 했어요. 어찌됐든 요세푸스는 가장 좋은 짚을 가지고 말아서 그 시점에 아직 살아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들이 유대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요세푸스는 “나는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요세푸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썄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요세푸스를 살려 두었고 아마도 그도 요세푸스의 예언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 자신의 어떤 일로 그는 결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그리하여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죽임을 당하였을 요세푸스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 풀려났고 그 후 약 10년의 과정에서 그는 그의 후원자인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쟁의 역사를 저술하여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기 80년대쯤에 유대 전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5년 후에 그는 『유대 고대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은 알렉산더 시대에 시작되어 유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고대 유물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저기에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추가하여 구약 성서를 다시 설명합니다. 유대 전쟁 발발. 따라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저술물이 있는데 둘 다 성서 중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측 구절인 외경과 위경, 필로와 요세푸스 외에도 우리는 매우 유명한 사해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적어도 중요한 진지 중 하나를 본거지로 삼은 종파가 기록하거나 복사한 문헌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우리가 쿰란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그들의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일종의 에세네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성경의 사본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된 다양한 성서의 가장 초기 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의 문헌도 있고,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부 문헌도 있습니다. 에녹과 희년의 일부 구약의 위경(Pseudepigrapha)은 어쨌든 히브리어로 단편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문헌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 특정 종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서기 200년부터 약 600년까지 이어지는 후기 기간부터 우리는 랍비 문헌을 갖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사역 당시 전적으로 구두 형태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부분인 미슈나(서기 200년경)와 탈무드(서기 400년경 및 400년경) 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약 550입니다. 원한다면 모두 랍비의 구전 전통을 편집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일부 성경 번역, 의역, 주석 등은 미드라심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이것이 바로 구약중간 시대에 관한 우리의 기본적인 고대 정보원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한 다니엘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약 중간 기간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는 방법의 일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이상한 신상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32절에서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 상체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옆구리는 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같은 구절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33절) 그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33절).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작은 하나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떨어져서 신상을 깨뜨린 후 가루를 내어 가루를 내어 그 돌이 자라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짧은 행위입니다. 그 이미지는 2장 38-4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5장에서 이미지와 행동이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우주적 통치가 금머리로 표현됩니다. 39절에서는 더 낮은 다른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Lower down 은 실제로 단어이므로 더 아래에 있다는 물리적 설명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보다 저렴한 금속인 금에서 은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그 머리가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그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후계 제국은 은으로 대표되고 온 천하를 다스릴 세 번째 나라이며 39절에 나오는 대로 놋으로 대표되며 넷째 나라는 철 같이 강하므로 철다리임이 분명하니라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43절에서 발에 관해 약간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다섯 번째 왕국임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넷째 왕국의 연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철 다리가 철과 진흙 발이 되는 것과 맞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는 강한 철이고 일부는 부서진 점토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는 젖은 점토가 아닌 구운 점토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 떨어져 부서지고 자라는 것이 4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와 다소 유사하게,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의 네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니엘이 꾸 꿈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하나는 사실 느부갓네살이 꾸 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7장 3~14절에 한 무리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19절, 20절, 21~23절의 설명을 통해 몇 가지 더 자세한 내용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올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그 다음은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고 그 짐승이 들리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뒷발로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4절).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치켜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있는 갈비뼈 세 개를 삼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셋째 짐승이 표범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짐승입니다. 네 개의 날개가 있고, 네 개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에서 우리는 철 이빨과 청동 발톱과 열 뿔을 가진 넷째 무섭고 무서운 짐승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열한째 뿔이 나와서 마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성도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과 보좌들이 놓여 있고 넷째 짐승이 멸망하고 그의 권세를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 앞에 와서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영원한 우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 매우 빠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으며, 토론을 진행하면서 왕과 왕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넷째 왕국은 다른 왕국과 다른 것으로 묘사되며 그 뿔은 왕들을 나타내고 열한째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마도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왕국을 받는 등,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여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 원한다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일반적인 해석은 비록 지난 몇 세기 동안 신학적 자유주의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지만 대표되는 왕국은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아시리아 왕국을 멸망시킨 약 609년부터 키루스가 아시리아 왕국을 점령한 539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인 페르시아와 자신이 합류한 메디아의 연합 왕국인 그의 왕국을 성공시켰고, 그들은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기원전 331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그리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476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금 머리는 바빌론을, 은 팔과 가슴은 메디아-페르시아를, 청동 배는 그리스를, 철 다리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환상에서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며, 그의 발로 서서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두는 개념은 사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된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복원되었습니다. 곰이 갈비뼈를 먹고 한쪽으로

치켜올린 모습.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솟아 있는 것이 페르시아 쪽이 미디어 제국 쪽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쪽에는 작은 뿔이 있는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그래서 페르시아 쪽이 큰 뿔이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그리스로 간주됩니다. 다니엘 8장의 나중 설명을 통해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리스라고 말한 그곳의 왕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에 뿔이 하나 있었는데 부러지고 네 개의 뿔로 대체된 동물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기 있는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는 원래 통일된 왕국이 손상되었을 때 왕국이 4중으로 분열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아마도 열 개의 뿔을 가진, 실제로는 열한 개의 뿔을 가진, 결국에는 열 개의 뿔을 가진 끔찍한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며 이 시점에서 그들이 두 번째 뿔을 가지고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 미디어는 마카베오 시대에 나오도록 그리스를 페르시아로, 로마를 그리스로 대체합니다.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제 구약 중간 기간에 대한 논의에서 누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나눌 것입니다.

글쎄요, 바벨론은 우리가 Inter-Testament에 도달할 때 이미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귀환이 스가랴와 학개, 실제로는 느헤미야 등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나 미디어-페르시아 치하의 팔레스타인, 그리스 치하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 치하의 팔레스타인을 선택하겠습니다. Maccabees,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넣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치하의 팔레스타인, 그리스 치하의 팔레스타인, 하스모니안 치하의 유대인 독립, 그리고 로마 치하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범주는 기원전 539년에서 331년 사이의 페르시아 통치 하의 팔레스타인이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는 키루스의 부상으로 시작됩니다. 키루스는 기원전 559년에 통치하기 30년 전이고, 그가 통치하기 20년 전입니다. 그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인 안산이라는 작은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550년에 메디아를 패배시키고 이로 인해 바빌로니아인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게 됩니다.

당시 왕 나보니 다스는 메대에 대한 반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레스에게 탁자 밑으로 약간의 돈을 주고 메대를 약화시키려 하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메대를 쳐부수고 이제는 자기가 메디아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는 먼저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546년에 소아시아를 점령한 다음 539년에 돌아와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키루스의 부상에 대한 매우 빠른 개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공부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이 제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39년에서 530년 사이에 키루스 치하의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아시리아인이나 바빌로니아인과 달리 키루스는 다른 종교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와는 달리 키루스는 추방 정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제국은 모두 한 백성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백성을 추방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반란을 조직할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글썄, 사이러스는 그것을 끝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영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1장 2-4절에서 우리를 위한 스케치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시점에서 약 50년 만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팔레스타인-유대인 논쟁에 끼어들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땅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을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즉 유대인 용어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고,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사이러스는 처음에는 재건축 시작을 허용했지만 이웃의 반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과 에스라 4장에서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고레스가 죽었을 때 공백기가 있었고 일부는 앞뒤로 싸우고 결국 다리우스, 여기 다리우스 1세가 521년에 권력을 잡고 46년까지 통치할 것입니다. , 통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민족처럼 반역하는 대신 연달아 다리오에게 충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520년경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 아래 515년경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자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계통으로 추정되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휘 아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굿맨 시대에 처음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1차 포로생활부터 1차 귀환까지 70년,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두 번째 성전 건축까지 70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세 번째 사건은 실제로는 두 가지 사건으로, 에스라 치하의 유다 부흥과 느헤미야 치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이러한 일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은 약 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아닥사스다는 약 465년에 통치하기 시작하고, 약 458년경에 에스라 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져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몇 년 후인 445년경,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느헤미야는 왕궁의 아주 친밀한 관리였는데, 페르시아 왕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으로 파견했습니다.

벽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을을 작은 마을로, 도시를 큰 마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행기와 주요 포병 등이 없던 시절에는 마을과 도시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새였습니다. 따라서 마을은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요새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을입니다.

도시는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요새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요새화되어 있다면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은 기원전 445년에 성벽이 완성되면서 다시 도시가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주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네 가지 주요 사건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의 부흥과 재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벽.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이것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모호한 사건인데,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아람어가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어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어, 시리아로 불렸던 그 지역의 옛 언어였는데, 시리아, 아시리아와는 꽤 헛갈립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단어는 아람(Aram)이며 일부 구약성서에서도 이 단어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프라테스 계곡 상류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주변에 있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헤어질 때 그들은 이 돌무더기를 쌓았고, 야곱은 그것에 증인 역할을 하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갈리드라 는 전문 용어입니다 . 아람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jagar 에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하 dutha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이 증거의 돌,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라반의 시대, 즉 기원전 1800년쯤 이후, 시리아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체를 정복함에 따라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외교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무역 언어로 아람어를 채택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그것을 계속했고, 페르시아인들은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추측은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일부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는 지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그들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무역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시점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포로된 사람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 등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어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율법을 읽을 때 일부 번역이 제공됩니다.

성서 중간 기간 이 끝나갈 무렵,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구두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동안 구전되었고, 기본적으로 번역한다는 뜻의 동사에서 따온 타르굼(Targums)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 당시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랍비의 주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기 400년과 550년의 탈무드 그래서 그것은 아람어이고, 그것은 중요하며, 그것은 이 페르시아 시대쯤에 언젠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즉 페르시아 시대의 바빌로니아 종말의 또 다른 특징은 회당의 부흥입니다.

회당은 성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되며, 기도와 성경 공부는 하지만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희생이 없는 예배입니다. 원산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 인데, 그 때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는 산당으로 보이지 않는 예배 장소가 땅 전체에 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직 그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그 땅에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2~3일 정도 걸어가면 모임이나 예배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현지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빌로니아 유배보다 앞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두 번째 성전과 함께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부터 서기 70년까지 세워졌고 당시에 이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랍비의 구절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회당이 100개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무슨 일이야? 음, 분명히 일종의 지역 친목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언급을 통해 그 중 일부가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위한 회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의 회당이나 사람들의 회당은 안디옥이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되면서 이곳은 제2성전이 파괴된 후 유일한 유대인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유대인 예배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전이라고 불릴지라도 실제로는 일종의 회당입니다.

글쎄, 우리는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 한두 마디 말할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2성전 또는 제2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며, 515년에 건설되어 서기 70년에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 즉 그런 종류의 견해를 고수하고 어떤 식으로든 모세의 규정을 계속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따라 어딘가에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성전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언약 갱신식을 행했던 두 산 중 하나, 즉 한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한 산에, 다른 그룹은 이 산에 서서 한 그룹은 축복을 외치고 다른 그룹은 저주 등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연대는 불확실하며, 기원전 450년에서 기원전 330년까지가 그 시기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마리아인에 의해 건축되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불만을 품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북쪽으로 온 등. 기원전 128년 하스모니안이나 마카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여전히 신약성경의 성지이다 시간, 요한 4. 20. 여자가 여기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서기 30년쯤이나 그와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거룩하다고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소수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숫자를 모른다. 내가 70년대에 본 것들은 수백 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전히 그곳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그 사이에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적어도 두 번씩 드리는 제사에 비해 1년에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원 외에도 이집트에서 개발된 사원이 있는데, 이집트 북쪽 사원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엘레판틴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원전 525년경에 설립되어 기원전 390년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기간에서 살아남은 파피루스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페르시아인에 의해 용병으로 고용되었거나 아마도 용병으로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 군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지도를 생각하는지에 따라 여기, 아래, 위 아래에 살았습니다. 지도에서는 남쪽에 있지만 나일 강의 첫 번째 백내장인 엘레판타인(Elephantine)이 있는 나일 강 위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시대의 피난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아마도 다신교였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으며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볼 수 있는 문제를 그들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이집트로 데려간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나는 실제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유래한 또 다른 사원을 언급했지만, 여기가 사원에 대해 논의할 곳이므로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레온토폴리스 신전은 기원전 160년경에 건립되었다가 서기 72년에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마카베오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사제직에서 쫓겨난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지은 것입니다. .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집트로 도망갔고, 그 아래에는 아마도 이집트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성전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쟁 이후 로마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란의 중심지로 기능할 장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음, 그것은 페르시아 치하의 팔레스타인을 매우 빠르게 여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원전 331년부터 기원전 160년까지 그리스인들이 통치했던 팔레스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마카베오파가 결국 그리스 제국의 잔재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알렉산더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기원전 336년부터 32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필립이라는 마케도니아 통치자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 필립은 알렉산더가 겨우 20세였을 때 암살당했지만 알렉산더에게 암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세의 알렉산더는 이미 필립의 군대에서 장군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그는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할 수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필립은 필리포스는 그리스 북쪽 영토인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그리스 사람이라고 밝혔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염두에 둔 필립의 계획 중 하나는 그보다 한 세기 정도 일찍, 그보다 한 세기 반 더 일찍 침략한 페르시아에 맞서 그리스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장악하자 그는 기원전 334년에 단 35,000명의 병력으로 소아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많은 남자처럼 들리지만, 역사가들에 따르면 페르시아인들이 150년 전에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백만 명이 넘는 남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5,000명의 남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썄요, 확실히 한 가지 장점은 페르시아인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자신들의 제국으로 돌아왔고, 소아시아에 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50~100개의 요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비대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수집하십시오.

알렉산더는 그해 소아시아 서부의 그라니쿠스 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소아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곳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동안 소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한 다음 동쪽으로 향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이야기는 그가 고르디우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마차의 탕에 정교하게 매듭을 지어 가로대를 걸 수 있는 마차가 있었고, 누구든지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마차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세계. 글썄요, 알렉산더는 몇 분 동안 장난을 쳤지만 분명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내심의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을 휘둘러 밧줄을 치고, 그가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나 그런 종류의 매듭을 모두 푼다.

글쎄요, 그는 당시에 이해되었던 대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투는 소아시아 반대편 이수스에서 벌어질 텐데, 이때쯤에는 페르시아군이 대군을 모아 그와 싸우러 왔습니다. 이수스(Issus)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고, 알렉산더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가 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의 왕실은 실제로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또 다른 군대를 다시 모으기 위해 페르시아의 수도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몇 년의 시간을 갖고 내려와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등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부인하는 다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지만,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시리아 북부를 점령할 때 그에게 군대 파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알렉산더가 그쪽으로 향했고,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모두에게 기도하게 했고, 사람들의 행렬이 알렉산더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들을 만났을 때, 알렉산더는 그리스로 돌아왔을 때 꿈에서 이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를 잘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다니엘에 나오는 그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유주의 집단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가 앞으로 15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야기이고 어떤 추측도 할 수 없는 것은 알렉산더가 어떤 이유로 유대인들을 매우 잘 대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그다지 잘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한 후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알렉산더가 나일 강 서쪽 이집트 사막에 있는 암논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신탁이 있고 그는 다시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유리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우리에게엔 타임머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31년에 그는 이제 페르시아의 중앙을 향해 이동했고, 가우가 멜라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은 동쪽으로 엄페물로 향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잡기 직전에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고 알렉산더에게 항복한다. 알렉산더는 제국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었고, 이는 아마도 나쁜 근사치는 아닐 것이며,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군대는 마침내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으로 돌아가고, 알렉산더는 이 모든 영토를 정복하고 바빌론에서 3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글썬요, 알렉산더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문화를 혼합하고 그리스어를 포함하여 그가 정복한 영토 전체에 그리스 사상과 태도 등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글썬요, 알렉산더는 이제 323년에 3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승권을 위한 투쟁을 가져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직 아기이고, 알렉산더의 동생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은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뭉쳤으나 서로 싸우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형도 죽고, 아기도 죽고, 아기도 죽고 나면, 그렇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글썬요, 결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만큼 압도적인 승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보통 4개로 계산됩니다. Lysimachus는 Macedon 북쪽의 Thrace 지역을 차지하고 Cassander는 Macedon을 차지하고 Seleucus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차지하며 Ptolemy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글썬요, 유대인 배경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후자의 두 사람, 즉 북쪽의 셀레우코스과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뿐입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 두 사람뿐입니다. 글썬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한 기원전 30년까지 지속되었지만 기원전 301년부터 기원전 198년까지만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다양한 장군들이 지배권을 위해 싸우는 동안 다섯 번째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안티고누스라는 이름의 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장군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전쟁 게임인 Risk를 플레이해 본 적이 있다면 때로는 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장군들이 하는 일입니다. 장군들이 안티고누스와 싸우고 있는 동안 프톨레마이오스는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점령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정착한 유대인들 모두 에 대해 합리적으로 호의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301년부터 198년까지 한 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함락되었지만 기원전 198년부터 약 160년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자들은 거의 변함없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리며, 오늘날 역사가들은 그들을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4세, 5세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모두 두 번째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 프톨레마이오스 인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는 기독교 용어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팻소(Ptolemy Fatso)라는 이름은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들은 앞뒤로 회전하는 두세 개의 이름을 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셀레우코스이고, 그 중 하나가 안티오코스입니다. 긴 일련의 전쟁 끝에 마침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았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6대, 8대, 9대 통치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더 잘 알려진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Antiochus Epiphanes), 괴짜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는 헬레니즘 유대인을 선호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백업하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주로 이집트인, 일부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전체로 구성된 이집트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적 다양성이 그리 많지 않아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소아시아를 거쳐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을 거쳐 거의 인도까지 다양한 민족을 포괄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는 자신들의 제국을 통일하려고 하면서 제국과 협력하여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운데 헬레니즘 세력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그를 아첨하여 예루살렘을 헬레니즘 도시로 건설하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글쎄, 그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거의 재앙입니다. 결국 마카베오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의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나중에 기원전 168년경에 유대교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이에 대해 모두 논의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거의 모든 중동 지역에 알렉산더 제국이 퍼지게 된 약간의 내분입니다 . 그러다가 그의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특히 북부 세력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남부 세력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두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라고 부르든 지배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적 배경인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이 시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헬레니즘이다. 헬레니즘(Hellenism)은 그리스의 그리스 고유 이름인 헬라스(Hella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이름 그리스(Greece)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부츠 밑바닥에 사는 일부 그리스인에게 붙인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Greike 라고 불렀습니다 . 글썄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Greikos 인 것 같아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은 알렉산더 이후 동쪽에서 발전한 그리스 문화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시리아 문화, 유대 문화, 이집트 문화 등을 그리스화하려는 시도는 헬레니즘일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분명히 유대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를 꽤 철저하게 헬레니즘화된 유대인으로 보고, 요세푸스는 약간 헬레니즘화된 유대인으로 보고, 원한다면 필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헬레니즘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레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사가들이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혼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두 개, 세 개, 네 개의 종교가 접촉하고 서로의 사상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어쨌든 지난 10년이나 세기 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은 아마도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의 혼합주의인 뉴에이지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각각의 요소를 채택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바알베크에 있는 시리아 성전에서 그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나는 1975년이나 6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년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알 숭배 장소에 있던 신전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알베크라는 이름이 베가 계곡의 바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들어왔을 때 바알 신은 제우스로 재확인되었고, 로마인들이 들어왔을 때 바알 제우스 신은 유피테르 등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다신교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두 문화가 함께 왔고, 하나는 최고의 여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최고의 신이 있고, 그들은 타협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타임머신도 없지만 확실히 그런 종류의 일이 역사상 일어났습니다. 글썄요, 헬레니즘이 팔레스타인에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때 그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에는 다양한 철학 학파가 있으며, 그것들은 동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고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필로는 스토아학파와 플라톤학파 유형의 사상, 초기 기독교인, 특히 초기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학자-신학자들은 스토아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러한 철학을 둘러볼 생각은 없지만 동양에서 헬레니즘이 미친 영향의 대부분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모든 영역을 차지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많은 부분을 재건 할 정치적 이점이었습니다. 도시는 그리스 도시로서, 그리스 도시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은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만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도시에서 사무실 등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단지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노예, 또는 뭔가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 소년이고 앞서고 싶어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거나 안디옥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어떤 특징이든 채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헬레니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의 가족은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들은 이미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과거에 몇 세대가 이어져 그의 가족은 다소에서 시민권을 얻은 다음 로마 시민권을 얻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천막 제작자가 있었고 로마인들이 그들의 캠페인을 위해 천막 제작자가 필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바울은 시민권을 얻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장교는 시민권을 사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하스몬 왕조의 반란 전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리스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70인역 성경 그리스어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전은 아마도 기원전 250년경에 시작되었으므로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점령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다.

Aristeas) 라고 부르는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그로부터 약 1세기 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70인역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사후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그리스 민족 중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기를 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사서를 위해 구했고, 사서는 도서관에 넣을 온갖 종류의 작품을

수집하려고 한다고 그에게 말했고, 사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 사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적어도 그 당시 그리스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로 내려와 율법을 번역할 유대인 장로 72명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율법을 번역했고 그 결과가 칠십인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좋아지면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야기에 추가된 것 중 일부는 번역이 구약성서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스테아스 의 서신에 따르면 그것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이라는 용어가 다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구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토라나 오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리스테아스 의 편지에 확실히 나타나게 될 나중의 추가 사항은 번역자가 36쌍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작업하여 구약성서 이야기의 36개의 동일한 버전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 자체가 영감받은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의 세부 사항, 특히 나중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 약간의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칠십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번역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의 단위로 번역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기원전 250년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에 걸쳐 상당히 통일된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번역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다른 많은 그리스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왔을 것이고 아마도 번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바빌론형 버전과 예루살렘 버전 및 사마리아 버전과 그런 종류의 것. 그리고 250년이라는 날짜를 보면 아마도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작업을 허용했을 것이고, 그가 그 작업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타임머신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적어도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70인역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번역은 고대에 알려진 고대 기록 중 가장 긴 번역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소 놀랍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의 본문이 우리가 대부분의 구약성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본문보다 한 세기 정도 앞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사용된 헬라어 신학 용어의 패턴을 설정하고, 구약을 당시 지중해 세계, 적어도 당시 동지중해 세계의 보편적 언어로 넣었으며, 그것이 초대교회의 구약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 복음이 이스라엘 너머로 실질적으로 퍼지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어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간 맞춰 가고 있어?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통치 하의 팔레스타인에서 기원전 160년 하스모니안 통치 하의 유대 독립으로 거의 한 세기를 거쳐 기원전 63년까지 이동합니다.

우리는 Antioch IV, Antioch's Epiphanies 및 Abomination of Desolation 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실제로 기원전 175년에 그의 미성년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헬레니즘을 통해 이 다양한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이전 셀레우코스 왕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레니즘 유대인들을 선호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안티오키아 , 즉 오늘날 우리가 안티오키아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헬레니즘에 훨씬 더 호의적이었고 확실히 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오니아스의 형제 이아손을 위해 정교회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 를 폐위시켰습니다. 제사장으로 보이는 대제사장 가문은 직위를 얻기 위해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메넬라오스는 큰 가격을 제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아손이 이미 폐위된 이후에는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급되지 않은 뇌물에 의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안티오코스는 제국의 프톨레마이오스 측을 장악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큰 부분을 통제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티오코스는 다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알렉산더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제국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기원전 168년에 로마인들이 나타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물리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10대 시절부터 안티오코스를 알고 지냈던 한 로마 동료가 둘 다 안티오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에게 와서는 로마 원로원이 당신이 이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집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인은 지팡이를 꺼내 안티오코스 주변의 모래밭에 원을 그리며 “거기 서서 생각하라” 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물러섰고, 로마인들에게 겁을 먹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으로 향합니다. 즉, 메넬라오스 등에 반기를 든 이아손이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결심한다.

그는 할례를 금지하고, 코셔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성전을 제우스에게 재헌납하고, 자신을 제우스의 현현으로 여기고 자신과 닮은 동상을 세웁니다. 우리는 동상의 사진이 없고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카베오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167년부터 약 134년까지 있었던 마카베오 반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썄,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반대를 진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셀레우코스 정부는 장교들을 파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순회합니다. 안티오코스의 법령을 시행하고 이교 희생을 명령하는 유대. 그들이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나이든 신부 마타티아스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끌려나왔고, 마을에 있던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이 많은 제사장 맛다디아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글쎄, 관리와 그의 군대보다 마을 주민이 더 많아서 관리와 군대를 죽이고 당연히 본부로 상당히 빨리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것은 꽤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장성한 다섯 아들은 무장 저항을 요청하고 산, 동굴 등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이 반란의 근원입니다.

이는 우리를 Mattathias의 아들 중 한 명인 유다로 연결합니다. Mattathias의 셋째 아들은 망치 또는 망치를 의미하는 Maccabee라는 군사 이름을 가졌습니다. Stonewall Jackson이나 이와 유사한 것 또는 Tippecanoe 또는 장군들이 때때로 사용하는 군사 이름 중 하나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군사 캠페인을 이끌고 매복 기술을 사용하고 셀레우코스가 여러 셀레우코스 군대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형을 파악하여 이를 관리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기본적으로 병력 증강의 측면에서 일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항상 필요한 병력 수를 과소평가하므로 점차 병력을 증강하면 유다는 성공하고, 유다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기준에 모여 듭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는 성공과 함께 성장하고 셀레우코스의 확대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요새인 성채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다 추종자들을 마카비라 부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신약성경의 시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전신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아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일부 헬레니즘 유대인들을 성채에 고정하고, 이곳이 한동안 제우스를 숭배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재헌납합니다. 기원전 164년, 이것이 봉헌절인 하누카의 유래가 됩니다. 한편, 안디옥 4세는 163년에 죽고, 리시아스는 충분히 나이가 들면 왕이 될 사람의

섭정을 말합니다. 리시아스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매우 경건한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 조건을 제안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베오파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반대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후, 셀레우코스 군대가 다시 돌아왔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다와 그의 군대는 기원전 160년에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글쎄요, 마타티아스의 아이들은 이게 끝이 아니군요. 유다는 셋째 아들이었고 현재 다섯 아들 중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160년부터 142년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요나단이고, 다른 한 사람은 142년부터 134년까지 통치하게 될 시몬입니다. 이 시점에서 셀레우코스 제국은 다음 문제에 대한 분열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뒤를 이어 유다와 시몬은 유대 땅 유다가 실질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외교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42년 요나단과 기원전 134년 시몬은 모두 반대자들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시몬이 세습 사제직을 얻고 그의 가족을 위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속적으로 두 가지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왕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것을 이미 조나단으로부터 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134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약간 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히르카누스(John Hyrcanus)로 기원전 134년부터 10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약해졌고 요한은 군사적으로 다소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대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상실되었던 해안 도시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산간 지방 등에 정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해안 성읍들을 빼앗고, 남쪽으로는 에돔 사람들의 땅인 이두메아를,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인 사마리아를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30년 동안 우리는 요세푸스에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요한의 어머니가 포로 생활 중에 그를 낳았기 때문에 요한이 대제사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PC가 아닌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안. 그는 대신 사두개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일종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04년에 그는 죽고, 그의 아들 중 한 명은 아리스토틀루스이며, 그는 약 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형제도 죽인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타이틀 왕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유다 출신은 원할 경우 장군일 뿐입니다. 원하신다면 조나단은 장군입니다.

시몬은 장군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 속하더라도 대제사장 계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틀루스는 왕이라는 칭호를 취하고, 그의 후계자는 원하신다면 그 칭호를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틀루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는 공포로 인해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는 술과 아마도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인해 그의 모든 형제를 암살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틀루스가 죽자

아리스토틀루스의 미망인은 이 형제 알렉산더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와 결혼합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John Hyrcanus의 미망인과 John Hyrcanus의 형제 Aristobulus가 왕족이 됩니다. 따라서 Alexander Jannaeus는 기원전 102년부터 76년까지 통치한 남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 솔로몬의 왕국만큼 커질 때까지 왕국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지고 있던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실제로 조각난 꽤 강력한 지역 왕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남은 자들인 시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자 알렉산더는 패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리아인, 즉 셀레우코스 왕조가 영토를 장악하여 그들이 다시 탈북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더 나을까요? 글썄요, 알렉산더가 승리했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반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문제에 끼어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잔뜩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글썄, 그는 기원전 76년에 죽었고,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내였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 후 그의 아내가 75년부터 6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Salome Alexandra이고 성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Hyrcanus II입니다. John Hyrcanus는 Hyrcanus I과 Aristobulus II가 될 것입니다.

히르카누스는 둘 중 온화하고 나이가 더 많은데 살로메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아리스토틀루스는 군사 지휘권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리스토틀루스는 매우 야심차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66년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사망했을 때, 우리는 하스몬 왕조의 독립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죽는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의 지원을 받는 히르카누스 2세(Hyrcanus II)가 계승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지원을 받는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그에게서 왕좌를 빼앗습니다. 히르카누스는 이웃 국가로 도망쳐 내전을 일으키고 로마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로마인들은 중동에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근동 지역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전화할 것이고 그들은 와서 도와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글쎄요 ,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의 특징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요세푸스와 신약성서에서 듣는 세 그룹,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우리가 요세푸스 자료에서만 듣는 에세네파와 두 가지 모두에서 들어보세요. 이 세 그룹의 기원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세 그룹 모두 이 기간 동안 분명히 마카베오 기간(168~63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에세네파는 마카비 반란에서 유다와 합류한 매우 경건한 그룹, 즉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그룹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드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서 헤세드에서 이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자비로운 언약이기 때문이지,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특징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들의 신학을 살펴보자. Essene이라는 이름은 Hasid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리스어에는 실제로 딱딱한 h 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할렐루야가 있고 그리스어에는 알렐루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에세네파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 그들은 우리가 슈퍼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얻었고 사실

그들은 성전이 실제로 충분히 정통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통치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시대착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칼빈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당시에는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구약성서에는 권위의 출처가 있지만 일부 비밀의 책이 있으며, 우리는 이제 비밀의 책 중 일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동적 징계, 예녹서, 희년서와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작품 중 일부는 아마도 해당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불멸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매우 강조했는데, 그것은 예녹과 희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를 밀턴의 실낙원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었고 그들은 종말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parash 에서 나온 것 같아요 . 분리하세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 에세네파에 비하면 실제로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의식적 순수성과 법에 대한 울타리 구축을 크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 에 걸터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당신은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는 일에 울타리를 쳐 사람들이 법을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 두는 몇 가지 추가 법률을 제정하므로 안식일 30분 전에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법적인 추세를 둘러싼 울타리에 속하는 일종의 범주가 될 것입니다. 주권과 책임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출처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구약성서에 구전 전통을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정보를 주었다고

믿었고 그것은 구전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심지어 교황의 전통과도 약간 카톨릭을 닮았습니다. 진술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교황과 동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확실히 부활을 믿었다면 알겠습니다.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천사를 믿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름과 많은 천사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에세네파만큼 강조하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은 종말론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조점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부 사항보다 마지막 심판에 더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를 사두개인들에게로 이끈다.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히브리어 T zedek Righteous에서 나온 제안일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룹이 자신의 그룹에 대한 이름을 선택할 때 대부분은 호의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몬교를 모르몬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룹을 퀘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Friends Society of Friends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그룹 이름이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독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실용적이고 다소 타협적인 경향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주변의 어떤 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잘 지냈습니다. 로마 정부 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측면에서 바리새인을 알 미니안주의 자라고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 등이 크게 강조됩니다. 계시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에 기원은 그들이 오경만을 고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얻은 증거는 성서 전체를 더 암시하며 그들은 바리새인의 구전 전통을 의심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전통과 아마도 에세네파 비밀 서적에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더 잘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부활 질문은 어떻습니까? 신약성서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생존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영혼 불멸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믿는다는 생각보다 부활에 관한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 그들에 대한 예수의 반응에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천사를 믿지 않았으며, 그들이 쓴 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좋아, 그게 그들이 오늘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는지, 그리고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약을 믿었다면 어떻게 천사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글썄, 신학적 자유주의자와 개신교인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아니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심판은 이생에 있습니다. 당신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상류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이 세 그룹이 빠르게 신학을 다소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신학입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생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에세네파는 많지 않았고 그들은 사회에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확실히 바리새파보다 작았으며 아마도 에세네파보다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물러난 에세네파는 정치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지배적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의 독서 방식이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반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지배적이었고, 이는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세네파의 영향과 생존: 그들은 사해 두루마리를 집필하거나 복사했기 때문에 1948년 이곳에 알려졌을 때 그들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루마리 중 일부가 중세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중 일부를 발견하고 랍비들의 구전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유대인 그룹. 그 순간 그들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섹션을 마치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꽤 상당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살아남아 살아남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집단이 되었고, 랍비 문헌은 사두개인의 상속자들이 쓴 것이므로 그것이 전체 세기에 걸쳐 정통 유대교를 지배하게 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두개인의 경우, 그들의 알려진 저술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저작물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에 살아남은 저작물 중 사두개파의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말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에세네파인 콤란은 68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유대 전쟁 중에 일부 에세네파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일부는 분명히 72년 마사다의 마지막 스탠드에 있었고, 그들의 자료 중 일부는 문서를 숨기는 장소인 회당의 오래된 문서인 카이로 게니자(Cairo Geniza)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마스쿠스 문서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히 그들의 것이며 그 사본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약 100년 전, 아니 그리 길지 않은 70년, 60년 전 카이로 게니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룹은 서기 70년의 멸망에서 살아남아 유대교를 지배했고, 사두개파는 성전과 함께 어느 정도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모두 멸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의 마지막 범주는 로마제국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실제로 마지막 범주 다음입니다. 기원전 63년부터 서기 135년까지, 여기서는 이 논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600년대에 무슬림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 통치 하의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기원전 63년에 멸망한다. Hyrcanus II와 Aristobulus II가 탈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리스토틀루스가 왕좌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르카누스는 엄폐물로 달려가 로마군을 불렀습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분쟁에 개입하여 아리스토틀루스를 진압할 수 있었고 유대는 이제 정복한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히르카누스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 유대에는 이두매, 페레아, 갈릴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는 왕에서 강등된 민족 집단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아우구스투스가 약 2세기 동안 제국을 통치했던 기원전 30년부터 서기 170년경까지 우리가 로마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팍스 로마나로 특징지어집니다. 로마제국이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시작된 반란 등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성장과 번영은 서기 2세기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기독교 전파에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로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로마 통치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특징은 로마인들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인상적인 도로

시스템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도 없고, 20세기 자동차가 발달할 때까지 이에 걸맞은 광범위한 도로 시스템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내 말은, 분명히 여기저기에 소수 민족이 있었지만 제국 내 이곳저곳을 이동하기 위해 여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고대 물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헤롯 가문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 가문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전에 그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티파터라는 이름의 헤롯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지만, 히르카누스 2세의 조연자였고, 히르카누스는 다소 온화하고 야망이 없었기 때문에 안티파테르가 왕좌 뒤에 있는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때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돕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찰관은 특정 영토나 국가에서 황제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통치자들의 특징인 안티파트로스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 아래의 행정관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마도 여러분 중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페이셀(Phasal) 이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본 헤롯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안티파터는 기원전 43년에 암살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기원전 37년부터 죽을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기원전 4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표준 날짜입니다. 안티파트로스가 죽자 로마인들은 헤롯과 페이살의 공동 분봉왕을 이 영토에 임명했습니다.

테트라크(Tetrarch)는 또 다른 단어이다. 끝에 있는 아치, 자, 여기 분기의 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위 영토를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과

파살이요 . 그러나 그 영토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두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로마 제국 바로 외곽의 동쪽 끝에 있는 파르티아인들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을 침공하여 잠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페이살을 죽였습니다 . 실제로 그들은 Phaseal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Phaseal은 고문이나 그런 종류의 것을 피하기 위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0년에 가까스로 도망쳐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의 원로원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들에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들이 꽤 야심찬 사람을 찾았고 그들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로마인들로부터 큰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인들은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돈을 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원하신다면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이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왕래하며 기원전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명목상 40명, 실제로는 37명인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인 여러분, 이 시기의 로마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시점에 학교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로 우리는 삼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안토니우스와 결국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릴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레피두스가 세 번째 사람이고 안토니우스 아래에 있는 동쪽 부분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클레오파트라는 유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기원전 31년에 둘 다 자살할 때까지 헤롯의 왕좌는 매우 불안정했고 그 후 그는 죽을 때까지 꽤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내내 끔찍한 가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마카베오 가문의 후손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 마리암네를 죽였고 그에게 마카베오 가문과의 관계를 알려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기본적으로 로마인이 지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 세 명을 죽였고 그 중 두 명은 마리암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좌를 포기할 준비가 되기 전에 그들이 왕좌를 차지하려고 시도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두 아들을 질투하는 셋째 아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코셔 음식 활동에 대해 논평하면서 상황이 너무 나빴습니다. 헤롯의 돼지 중 하나, 그의 아들 중 하나, 누가 돼지이고 누가 아들인지 사이에 그리스어로 약간의 놀이가 있어서 그게 상황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몇 가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세 아들 등을 살해했다고 해서 그가 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매우 넓은 영토를 통치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기원전 19년부터 남은 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했으며, 그 후 서기 66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유대인 반란 이후 파괴될 시간에 맞춰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마리아의 도시였던 세바스티 해안의 가이사랴 등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서 여러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고학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유적 중 일부가 나옵니다. , 적어도 표면 위의 것들은 종종 어떤 종류의 헤로디안 유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과 같이 예루살렘 성 주변의 일부 성벽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아니, 헤브론, 헤브론, 고맙습니다. 베들레헴 등이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마태복음에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다른 역사 기록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진술이 없지만 그의 성격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세 명을 죽였고 그들 중 한 명은 그를 계승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너무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습니다. 따라서, 헤로디안이 아닌 왕위 주장자가 얼마나 매우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마침내 죽었을 때 그는 유언장을 준비했지만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유언장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그의 제국의 주요 항구와 그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며,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릴 것이고, 빌립은 북쪽 일부 지역을 다스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에리트레아, 트라코니티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증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의 반환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 비유는 그의 청중들에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글썄요, 아켈라오스에는 헤롯 가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서 아우구스투스는 그에게 에트나르크라라는 칭호를 주지만, 그가 훌륭한 일을 하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서 약 10년 안에 해임됩니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는 자신들의 영토에서 상당히 관찮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안티파스는 서기 39년까지 통치하고 빌립은 서기 34년까지 통치 하지만 아켈라오스는 서기 6년경까지만 통치합니다. 헤롯에게는 이 외에도 두 명의 후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손자와 증손자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리암네의 후손이므로 헤롯이 죽인 아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의 후손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립바 1세인데, 그는 실제로 서기 41년에서 44년 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 후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요세푸스와 사도행전 모두에서 우리를 위해 설명됩니다. 그 후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립바 2세가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영토의 왕이고 서기 100년경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헤롯 왕조의 종말이고, 마침내 그 시점입니다. 음, 여기에 섹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음, 실제로는 두 개의 섹션이 더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정확하게 추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섹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있어서 다소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로마 통치는 신약 시대 말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세푸스가 언급하고, 수에토니우스가 언급하고, 타키투스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기 1세기에 강력했고 유대 반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이 다니엘의 70주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언제 실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기 1세기라고 부르는 시대에 그것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꽤 분명했습니다.

나는 예언의 증거라는 책의 메시아 시대라는 장에서 이에 대해 약간 논의한 적이 있으며, 우리 히브리어 웹사이트에도 같은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 말기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점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초기 성경 외 자료에서는 메시아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묘사했지만, 성경 외 자료에는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더 명확한 견해가 없습니다. 구약성서 자체에는 힌트 이상의 내용이 있으며, 분명히 신약성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성경 외의 다른 자료는 일종의 천사적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후기 랍비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데이터는 그의 직무, 그의 활동, 오실 유형, 존재의 유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역설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역설이 신약 성경과 예수에 의해 해결되기를 제안합니다. 신약성서의 메시아 모델에 관한 또 다른 기사는 이 책 예언의 증거에 있는 메시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BRI 웹사이트 IBRI 연구 보고서에 있는 우리 장의 신약성서 메시아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중간기로부터 메시아 시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부활 후의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르는 종말론에 관해 해석하려는 유대인들의 견해는 종말론에 관해 신약성경을 해석하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불밀, 프리밀, 포스트밀과 모호하게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가깝지는 않지만 그 방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견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을 보고 이 시대라는 제목을 붙인 다음 메시아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일부 견해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 시대와 메시아의 시대를 가지기 위한 기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구상에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천년기를 가졌으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견해에는 다가올 시대가 이 시대에만 종말이 있었고, 따라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천년 왕국의 입장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이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이고 다가올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천년왕국 전 종말론에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유대교 해석가들이 종말론적으로 보이는 구약성서의 예언적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조각을 얻었으므로 조각을 보고 이 조각에 그 색상이 있는지, 이 조각이 일치할 것인지 등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힘든 일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종합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적어도 천년왕국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옳다고 말할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신약성서나 그와 비슷한 것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구약성서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종말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도덕적 부패가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선구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는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천년설주의자는 아마도 먼저 상당한 귀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들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왕국이 먼저 세워진 다음 그가 들어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왕국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립하는 데 참여하고 심지어 그것을 확립할 메시아와 실제로 통치할 메시아가 두 명 있는 모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시대가 있으며, 다양한 해석가들이 종합한 대로 열방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가변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아래에 있을 것인가 등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든 이 시대보다 더 기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기간은 불확실하며 어떤 것은 40년이 되고 어떤 것은 1000년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곡과 마곡의 반역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물론 그 문구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에도 나타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영원한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심판, 그리고 그들은 형벌이나 보상의 영원한 상태를 보았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략히 이야기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대 국가의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팔레스타인. 로마와 이스라엘, 그리고 적어도 일부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의 종말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집권하던 41~44년을 제외하고 86년부터 6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명의 교체된 아켈라오스가 잘못된 정부에 대한 유대인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지사 또는 총독이라고 불리는 총독을 데려왔습니다. 8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구 조사에 관해 열광적인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은 다가올 일의 징조였습니다. 이 60년 동안 로마-유대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열심당의 세력은 점차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40년경에 우리에게 칼리굴라로 더 잘 알려진 로마 황제 가이우스는 과대망상에 빠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명령이 집행되기 전에 죽었지만, 당시 로마 검찰관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연시켰고, 칼리굴라는 어차피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총독들은 41~44년에 헤롯 아그리바를 제외하고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한다.

일반적으로 검찰관은 유대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그리스-로마 세계 등에서는 꽤 흔했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들을 반대하는 열광자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광신자들은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로마 총독 중 마지막 두 명인 알비누스(Albinus)와 플로루스(Florus)는 특히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썄, 그것은 AD 66~73년에 첫 번째 유대인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건으로 시작되어 총독과 열심당원들에 의해 확산되고 부채질을 받아 온 나라를 불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고 요세푸스도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 점차 더 급진적인 열심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반란은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유대 국가의 파괴로 끝났고, AD 73년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소탕작전이 마무리됐다.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70년부터 135년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Rabbi Yohanan Ben-Zachai입니다. 그는 포위 공격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것이 재앙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목인으로 그는 아픈 척했고 아마도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린 척하고 죽은 척했습니다. 그는 관에 갇혔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고 일단 그들이 벽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는 관에서 나와 로마인들에게로 도망칩니다.

요하난은 로마인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브네의 구약성서 이름인 잠니아(Jamnia) 해안 도시에 랍비 학교와 산헤드린을 세웠고, 그곳에서 바리새주의의 노선을 따라 국가나 사원 없이 유대교를 재건했으며, 결국 성문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전법은 미슈나이교 나중에는 탈무드이다 . 서기 90년경, 유대 기독교인들은 서기 90년에서 100 년 사이에 회당 전례에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추가함으로써 회당에서 제외되었고 , 그 시점 이후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명백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지만, 그런 종류의 분열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비기독교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Bar Kokhba(AD 132~135년의 두 번째 반란)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가를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특히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73-132 거의 60년이 지났고 로마인들은 예루살렘 옆에 이교도 도시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도시의 이름은 Aelia Capitolina가 될 것입니다. Capitolina는 로마 판테온의 주요 신들을 기리는 이름이며 Aelia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의 성이며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석 랍비 중 한 명인 아키바(Akiba)는 철학적 벤-코시바(Ben-Kosiba)를 메시아로서 반란을 주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으며 숫자 2417의 성취는 야곱에게서 별이 나올 것이므로 그는 바르(Bar)로 알려지게 됩니다. 스타의 아들인 코크바(Kokhba)는 자신의 이름인 Ben-Kosiba를 이용한 연극입니다. 반란은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제로 아주 작은 군대로 제국을 통치했고, 그래서 그 제국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인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한동안 성공했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학살로 진압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속죄일 외에는 예루살렘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선교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원하신다면 구약성서의 끝부터 실제로 신약성서의 끝을 지나서 유대인의 배경을 둘러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긴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두 번째 단원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단위를 만들었습니다.